

# 『黃帝內經』의 四時別 五輸穴 取穴法에 대한 小考

慶熙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金鍾鉉<sup>1</sup> · 丁彰炫<sup>1</sup> · 張祐彰<sup>1</sup> · 白裕相<sup>1</sup> \*

## A Study on Method of Selecting Five Su Point(五輸穴) According to the Turning of Season i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Kim Jong-hyun<sup>1</sup> · Jeong Chang-hyun<sup>1</sup> · Jang Woo-chang<sup>1</sup> · Baik You-sang<sup>1</sup> \*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raditionally, Korean Medicine put emphasis on the treatment and health-preserve method that corresponds with circulation of nature. And acupuncture is no exception to this rule. I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some chapters present method that is changed according to the seasons. Among the chapters, there are some difference, but we can find a general theory. In spring, Yanggi(陽氣) is coming out but not strong and cannot diffuse. so the Yanggi(陽氣) hang up the middle of outer layer. Therefore, we can take some acupoints around the muscle interspace[分腠] or tiny branches of Meridian[孫絡]. In summer, Yanggi(陽氣) flourish and boil all around of the outer layer. So, we can take some acupunctural points from skin to the yang-meridian. In both fall and winter, five su point[五輸穴] make up almost of point. in fall, yanggi begin convergence. we can remove the Eum-pathogen[陰邪] and help the normal convergence by using Stream point[腧穴], River point[經穴] and Sea point[合穴]. In winter, Eum surround so solidly that the neo Yanggi(陽氣) cannot come out. So, we can break the yin by using Well point[井穴] and make be strong by Spring point[榮穴]. If we Study the method that correspond with the seasonal circulation more, we will be able to treat diseases more minutely.

**Key Words** : Five Su Point(五輸穴), Season(四時), Method of Selecting Point(取穴法)

## I. 序 論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天人相應의 원리를 중시하였으며, 병의 예방, 치료 및 생활 전반에 있어서 天地의 순행에 적합하게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전통은 이미 『黃帝內經』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비록 후대에 補入되기는 하였으나 運氣七篇의 내용 중에 기후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邪氣의 침입을 막고 질병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E-mail : baikys@khu.ac.kr Tel : 02-961-0326.  
접수일(2009년 1월 25일), 수정일(2009년 2월 8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9일)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四氣調神大論」을 비롯한 많은 편에서 계절에 따른 養生法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시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비단 養生法뿐만 아니라 鍼灸治療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는데 『內經』의 여러 편과 『難經』, 『脈經』 등에서 鍼灸治療 시에 계절에 따라 取穴<sup>1)</sup>을 달리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金元時代 이후로 臟象學이 발전함에 따라 내부의 病因을 중시하게 되었고 각각의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素因을 고려하여 치료하는 의학 풍조가 유행하면서 외부 시간 변화에 따른 치료법은 점점 임상치료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일부 사변적이고 도식적인 적용의 형식으로만 남게 되었다<sup>2)</sup>.

金元四大家의 醫學思想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성립된 『東醫寶鑑』의 경우도 運氣學에 대한 설명과 일부 方藥法에서 몇 가지 季節別 加減法을 언급하였을 뿐, 鍼灸治療에 있어서는 시간 개념이 포함된 구체적인 取穴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활용되는 鍼法 중 시간 변화를 규율로 삼아 刺鍼하는 것으로는 ‘子午流注鍼法’, ‘靈龜八法<sup>3)</sup>’ 등이 있는데 이들도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는 舍岩鍼法<sup>4)</sup>이나 董氏鍼法에서도 시간의 개념을

중요하게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시간의 변화를 염두에 둔 鍼灸治療의 전통은 內經時代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의학의 치료에서 대원칙으로 인식되어왔던 ‘天地의 運行에 적합하게 살아간다.’라는 기본 원칙에 더욱 충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鍼灸 치료에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素問』과 『靈樞』에서 제시한 시간 변화에 따른 鍼灸治療 방법을 고찰해 보고 궁극적으로 임상에 적용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계절에 따른 五輸穴의 刺鍼 부위를 언급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각 篇마다 그 부위를 설명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역대의 註家들도 『內經』의 문구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는 봄부터 겨울까지 오직 五輸穴로만 榮, 輸, 經, 合, 井의 순서로 배속을 한 반면, 『素問水熱穴論』이나 『靈樞』의 「四時氣」, 「本輸」 등에서는 五輸穴을 주로 가을과 겨울에 배속하고 봄과 여름에는 皮膚, 腠理, 孫絡 등을 刺鍼 부위로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篇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파악해 보고, 실제 刺鍼을 할 때에 운용할 수 있는 원리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黃帝內經』에서 계절에 따른 刺鍼 부위를 언급한 편들 중에서 비교적 그 상관관계가 명확한 五輸穴을 포함한 「水熱穴論」, 「四時氣」, 「本輸」, 「順氣一日分爲四時」 등 4편을 중심으로 역대 註家の 주석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비교 고찰 하였다.

## II. 本論

### 1. 『黃帝內經』의 四時別 五輸穴 取穴法

『內經』에서는 『素問·水熱穴論』, 『靈樞·四時氣』, 『靈

1) 取穴法은 辨證을 통하여 穴處를 선택하는 것, 穴位를 정확하게 잡는 것, 刺鍼을 정확하게 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五輸穴의 取穴法은 계절별로 穴處를 달리하는 것과 해당 穴位에 刺鍼할 때에 刺鍼의 淺深 등을 규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2) 하루의 經絡 循環 次序에 따라 刺鍼하는 子午流注鍼法과 기타 靈龜八法 등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지 시간 변화에 따라 해당 經絡이나 經血을 선택하는 도식적인 치료 방법이었다.

3) 東洋醫學大辭典(7)(東洋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編,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p.104.)에서는 “靈龜飛騰, 飛騰八法, 奇經納卦이라고도 한다. 奇經八脈의 8혈을 기초로 하고 八卦, 九宮, 天干, 地支의 變易을 배합하여 인체의 氣血盛衰를 추산하여 언제 어느 穴位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主穴과 配穴 1개씩을 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4) 舍岩鍼法에서는 九六補瀉를 함에 있어서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臟腑辨證을 통한 虛實 辨證을 기준으로 選穴하고 있다.

5) 素問의 水熱穴論, 四時刺逆從, 通評虛實論, 診要經終論 등과 靈樞의 四時氣, 本輸, 寒熱病, 順氣一日分爲四時, 終始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樞·本輸,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sup>8)</sup> 등 4편에서 주로 五輸穴을 포함한 여러 부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각 편에 언급한 계절별 刺鍼 부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와 『難經·七十四難』의 내용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고, 다음으로 기타 편들과 종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水熱穴論	四時氣	本輸	順氣一日分爲四時
春	絡脈, 分肉	經脈, 血脈, 分肉之間	絡脈, 榮穴, 大經分肉之間	榮穴
夏	盛經(陽經), 分腠 (甚者深刺之, 間者淺刺之)	盛經, 孫絡, 分間, 絕皮膚	腧穴, 孫絡, 分肉, 皮膚之上	輸穴
長夏	×	×	×	經穴
秋	俞穴(瀉陰邪), 經穴, 合穴(虛陽邪, 陽氣始衰)	經穴, 腧穴 合穴(邪在腑)	合穴	合穴
冬	井穴, 榮穴	井穴, 榮穴 (必深而留之)	井穴, 腧穴 (欲深而留之)	井穴

표 1. 『黃帝內經』의 四時別 五輸穴 取穴法

### 1) 『難經·七十四難』과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의 비교

다른 편과는 달리 「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는 五輸穴만으로 계절별 刺鍼 부위를 정하였다. 五輸穴의 순차적인 계절별 배속은 『難經·七十四難』에서도 볼 수 있는데 「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는 봄부터 겨울까지 榮, 輸, 經, 合, 井의 순서로 배속하였고, 『難經』에서는 봄부터 시작해서 井, 榮, 輸, 經, 合의 순서로 배속하였다<sup>6)</sup>. 이에 대하여 嚴東明은 논문에서 「順氣一日分爲四時」의 배속은 아직 미약한 기운을 복돋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難經·七十四難』의 배속은 각 계절의 성해진 邪氣를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sup>7)</sup> 즉, 『靈樞』의 배속은 다음에 올 계절에 해당하는 氣를 미리 生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補法을 통하여 刺鍼하는 방법이며, 『難經』에서는 각 계절에 五輸穴을 배속한 이유를 봄에는 邪氣가 肝에 있고, 여름에는 心에 있고, 長夏에는 脾에 있고, 가을에는 肺에 있고, 겨울에는 腎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sup>8)</sup> 邪氣를 瀉하려는 목적으로 刺鍼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는 五輸穴의 取穴法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藏은 겨울을 主하고, 色은 봄을 主하고, 時는 여름을 主하고, 音은 長夏를 主하고, 味는 가을을 主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sup>9)</sup> 양자를 단순히 補瀉의 차이로만 단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 즉, 『難經』이 病所를 取穴의 근거로 제시한 반면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는 각 계절이 臟, 色, 時, 音, 味

6) 尹暢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944. “春刺井, 夏刺榮, 季夏刺俞, 秋刺經, 冬刺合.”

7) 洪元植, 嚴東明. 五輸穴을 이용한 四時刺法-『靈樞』와 『難經』을 중심으로. 大韓鍼灸學會誌. 2000. 17(4). p.27.

8) 尹暢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944. “春刺井者, 邪在肝. 夏刺榮者, 邪在心. 季夏刺俞者, 邪在脾. 秋刺經者, 邪在肺. 冬刺合者, 邪在腎.”

9) 金達鎬, 李鍾馨.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856. “藏主冬, 冬刺井. 色主春, 春刺榮. 時主夏, 夏刺輸. 音主長夏, 長夏刺經. 味主秋, 秋刺合.”

를 각각 주하는 것을 근거 삼았는데, 이에 대한 張介賓의 설명을 살펴보면 “五藏은 藏을 주하므로 그 氣가 겨울에 응하고... 五色은 蕃華한 것이므로 봄을 주하고... 五時는 長養하는 것이므로 그 氣가 여름에 응하며... 五音은 繁盛하여 그 氣가 長夏에 응하고... 五味은 成熟하여 五藏을 기르므로 그 氣가 가을에 응한다(五藏主藏, 其氣應冬... 五色蕃華, 其氣應春... 五時長養, 其氣應夏... 五音繁盛, 其氣應長夏... 五味成熟, 其氣應秋).”<sup>10)</sup>라 하였는데 이는 특정한 病所를 지칭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른 生, 長, 化, 收, 藏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臟, 色, 時, 音, 味의 변화를 병변과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病이 臟에 있을 경우 井穴을 취하며, 病의 변화가 色에 나타나는 경우 榮穴을 취하며, 病이 시간에 따라 심한 경우는 輸穴을 취하며, 病의 변화가 소리에 나타나는 경우 經穴을 취하며, 經이 그득하여 血이 있는 경우에 病이 胃에 있거나 음식이 절도가 없어서 병을 얻은 경우에는 合穴을 취하니 그러므로 味가 合穴을 주관한다고 이른다. 이를 五變이라 한다(病在藏者, 取之井. 病變於色者, 取之榮. 病時間時甚者, 取之輸. 病變於音者, 取之經. 經滿而血者, 病在胃, 及而飲食不節得病者, 取之於合, 故命曰味主合. 是謂五變也).”<sup>11)</sup>라고 하여 病이 드러나는 診斷의 인면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五輸穴의 取穴法 내용을 담고 있는 「水熱穴論」이나 「本輸」 등 다른 편의 설명을 볼 때 모두가 補法에 국한하여 取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難經·七十四難』의 배속은 계절에 따른 臟腑의 盛衰를 조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의 배속은 계절에 따른 인체 전체의 氣의 변화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2)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와 『內經』~다른 편의 비교

10) 張介賓 著, 李南九懸吐注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779.

11) 金達鎬, 李鍾馨.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858.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를 제외한 다른 篇에서는 五輸穴 이외에 皮膚, 分肉, 絡脈, 經脈 등의 다른 신체 부위를 같이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皮膚, 分肉, 絡脈, 經脈 등은 주로 봄과 여름에, 五輸穴은 주로 가을과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身形의 체표를 구성하는 皮膚, 分肉, 絡脈에 비해 五輸穴이 深部に 위치한다고 본 것인데, 이는 五輸穴이 비록 經脈 상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기능상 안으로 臟腑와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상대적으로 深部に 위치한다고 여긴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봄과 여름의 刺鍼 부위는 주로 表部に 있으며 가을과 겨울의 刺鍼 부위는 주로 深部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內經』에서는 「順氣一日分爲四時」만 유일하게 長夏에 자침부위를 정하고 있으며, 五輸穴의 배속 또한 五行運行的 순서에 따라 계절 별로 하나씩 배속하고 있다. 나머지 편들에서는 長夏에 자침부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長夏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계절 중에 長夏를 구분하는 것이 실제 임상 치료의 시행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기타 편에서는 五輸穴뿐 아니라 皮膚, 分肉 등 보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刺鍼 부위를 더하여 일정한 규칙성이 부족한 편인데 이것도 역시 임상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順氣一日分爲四時」가 계절에 따른 氣의 盛衰를 기준으로 규칙적이고 이론적인 배속을 했다면, 나머지 편들에서는 이에 비해 규칙성이 적고 좀 더 실제적이고 임상적인 관점에서 배속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3) 기타 문제

모든 편에서 五輸穴을 배속하는데 있어서 그 시점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井榮輸經合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本輸」에서는 가을에 合穴을 배속하고 겨울에 다시 輸穴이 배속되어 있어 그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諸腧는 藏府의 背腧穴이니 肺腧穴, 心腧穴등과 같은 종류가 이것인데, 위의 문장에서 五輸穴이라 말한 것이 아니다(諸腧者, 藏府之腧, 如肺腧心腧之類是也. 非上文五輸之謂).”<sup>12)</sup>라고 설명했다. 즉, 이미 여름에 腧

穴을 배속하였고 또한, 겨울에는 氣가 閉藏하는 시기로 당연히 氣가 깊은 곳에 위치하므로 여기서 말한 腧穴은 臟腑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背俞穴을 배속한 것이라 본 것이다.

### Ⅲ. 考 察

#### 1. 春夏의 取穴法

봄의 刺鍼 부위를 살펴보면 榮穴, 分肉, 絡脈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經脈과 血脈을 언급한 곳도 있다. 이에 비하여 여름의 刺鍼 부위는 腧穴, 孫絡, 盛經, 皮膚 등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春夏는 陽氣가 밖으로 나타나는 시기로 刺鍼 부위는 秋冬에 비하여 表部에 위치하고 있는데, 봄의 자침부위가 表에서 중간 정도[分肉, 絡脈]에 위치한다면 여름의 자침부위는 봄보다 더 표층[孫絡, 皮膚, 分腠]이거나 심층[盛經]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水熱穴論」에서는 봄에 絡脈과 分肉을 刺鍼하는 것을 두고 “봄은 木氣가 다스리기 시작하니, 肝氣가 급하고 그 風은 빠르는데 經脈은 항상 깊지만 그 氣가 적어서 깊이 들어갈 수 없다(春者, 木始治, 肝氣急, 其風疾, 經脈常深, 其氣少, 不能深入).”<sup>13)</sup>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이에 대해 “風木の 邪氣가 비록 급하고 빠르지만 봄의 기운은 본래 부드럽워서 장차 밖으로 達하려 하는데, 經脈은 너무 깊이 있어서 邪氣가 깊이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絡脈의 穴을 취한다(風木之邪, 雖爲急疾, 然春氣本柔, 將達於外, 經脈常深, 邪非深入, 故當取絡脈之穴).”<sup>14)</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張介賓이 ‘不能深入’의 주체를 邪氣로 본 이유는, 봄에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氣가 發散되어 나오는 때이므로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氣는 刺鍼

의 대상이 되는 經氣에 가까우므로 반드시 우리 몸 전체의 氣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몸 전체가 氣가 깊숙이 있다 하더라도 經脈의 氣는 이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氣가 부족하다는 표현은 봄철에 아직 陽氣가 始生하므로 절대적인 양은 아직 부족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陽氣가 體表와 深部の 중간에 위치하여 아직 세력이 약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이어서 나오는 여름의 刺鍼 부위를 언급한 중에서 “內至於經. 故取盛經分腠.”라 하여 안으로 經까지 깊이 이른다 고 한 부분과 대비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靈樞·本輸』에서 “봄에는 絡脈과 모든 榮穴과 大經의 分肉 사이를 취한다(春取絡脈, 諸榮大經分肉之間).”<sup>15)</sup>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楊上善은 “봄철에는 陽氣가 생기기 시작하여 미약하므로 아직 經脈 속에 깊이 이를 수 없으니 絡脈을 다스리고 더불어 모든 榮穴과 大經의 分肉 사이를 취한다(春時陽氣始生微弱, 未能深至經中, 故取絡脈, 及諸榮并大經分肉之間也).”<sup>16)</sup>라고 하였고, 張介賓은 이에 대해 “絡脈은 떠오르고 榮穴은 氣가 미약하여 모두 봄철의 기운에 호응하니 少陽의 승으로써 장차 상승하려 하지만 아직 그 氣는 내부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刺鍼할 곳은 絡脈이나 榮穴에 있으니 모두 큰 경맥의 分肉 사이를 치료하는 것이다(絡浮榮微, 皆應春氣, 以少陽之令, 將昇未昇, 其氣在中. 故刺之者, 在絡在榮, 皆中取於大經分肉之間).”<sup>17)</sup>라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이는 봄에 陽氣가 表部로 출하였으나 그 氣의 양은 아직 적어서 陰氣를 이기지 못하므로 陽分 중 중간에 鬱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위로는 아직 가장 밖에 위치한 孫絡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며 안으로도 깊은 經脈 부위까지 氣血이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그림1).

12) 張介賓 著, 李南九懸吐注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781.

13) 金達鎬, 李鍾馨. 黃帝內經 素問(下). 서울. 醫聖堂. 2002. p.210.

14) 張介賓 著, 李南九懸吐注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781.

15) 金達鎬, 李鍾馨. 黃帝內經 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90.

16) 楊上善著, 王洪圖, 李云增補點校.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274.

17) 張介賓 著, 李南九懸吐注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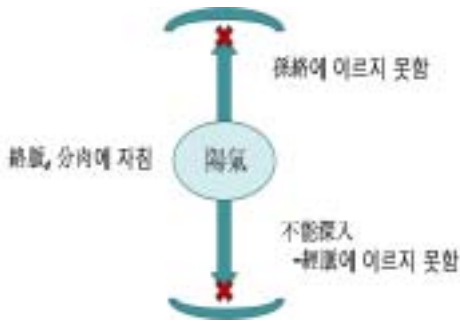


그림 1. 春의 刺鍼 부위

이에 비해 여름의 刺鍼 부위를 설명함에 있어 「水熱穴論」에서는 “그러므로 盛經과 分腠를 刺鍼하며 皮膚를 絶하여 병이 낫는 것은 邪氣가 얇은 곳에 거처하기 때문이다. 盛經이라 하는 것은 陽脈이다(故取 盛經分腠, 絶膚而病去者, 邪居淺也. 所爲盛經者, 陽脈也).”<sup>18)</sup>라고 하였다. 봄에는 아직 陽氣가 피부 끝[孫絡]까지 투출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었지만 여름에는 陽氣가 피부 끝까지 퍼지므로 가장 表部를 刺鍼 부위로 취하게 되며, 絶하라는 것은 바로 刺絡療法를 말한다.

또한 앞 구절에서 “여름은 火氣가 다스리기 시작하니, 心氣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血脈이 수척해 지면서 기운이 약해지고 陽氣가 머물렀다가 넘쳐흘러 熱氣가 分肉과 腠理를 熏蒸하니 안으로는 經에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盛經과 分腠를 치료한다(夏者, 火始治, 心氣始長, 脈瘦氣弱, 陽氣留溢, 熱熏分腠, 內至於經. 故取盛經分腠).”<sup>19)</sup>라 하였는데, 여름은 만물이 자라고 번성하는 시기로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을 보이지만 안으로는 오히려 陰氣가 虛해지기 쉽다. 따라서 脈이 수척하다는 것은 곧 陰氣가 부족해지는 것이며, 氣가 부족하다는 것도 역시 脈氣가 약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脈中의 陰氣가 부족해지면 음기가 약해져서 陽을 제어하지 못하여 陽氣가 머물러

鬱滯된 후에 다시 熱로 바뀌어 밖으로 흘러넘치니, 熱氣가 혼증하여 위로는 分腠나 피부에 이르고 아래로는 盛經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서의 盛經은 陽脈이라 하여 陽經과 관련된 經脈을 말한다. 즉, 봄에는 氣少하여 不能深入하지만 여름에는 많은 활동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脈氣가 傷한 상태에서 陽氣가 울체되었다가 넘쳐서 經脈의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陰經이 아닌 陽經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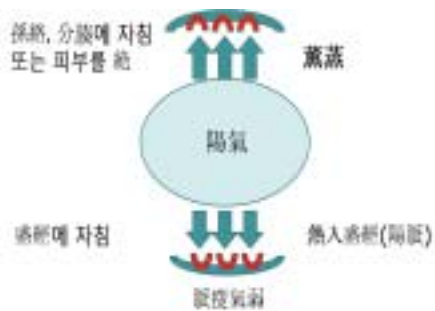


그림 2. 夏의 刺鍼 부위

진체적으로 볼 때 表裏 모두 陽氣 또는 熱氣가 上下로 발산되는 양태라 할 수 있다(그림2). 따라서 刺鍼하는 방법은 밖으로는 孫絡, 皮膚, 分腠 등을 취하고 皮부를 絶하며, 안으로는 盛經[陽脈]을 취하는 것이다.

「本輸」에서 여름에 諸腧, 孫絡, 肌肉, 皮膚之上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楊上善이 말하기를 “陽氣가 비로소 왕성해지기 시작하여 熱氣가 腠理를 熏蒸하고 안으로 經脈에 이른 이후에 經脈이 피로하여 氣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모든 腧穴, 孫絡之分, 腠理, 肌肉, 皮膚之上을 취하여야 한다(陽氣始長, 熱熏腠理, 內至於經, 然後脈疲氣弱. 故取諸輸孫絡之分, 腠理肌肉皮膚之上也).”<sup>20)</sup>라고 하였는데 역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여름에는 밖으로 陽氣가 발산되고 안

18) 金達鎬, 李鍾馨. 黃帝內經 素問(下). 서울. 醫聖堂. 2002. p.210.

19) 金達鎬, 李鍾馨. 黃帝內經 素問(下). 서울. 醫聖堂. p.210.

20) 楊上善著. 王洪圖, 李云增補點校.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275.

으로 陰氣는 약해지는데, 이때 가장 체표인 孫絡에서는 血이 울체되므로 刺絡[絶皮膚]하고 비교적 깊은 經脈에도 氣血이 몰리므로[盛經] 이에 刺鍼하게 된다. 단, 이때의 盛經은 아주 깊은 곳이 아닌 陽經일 뿐이다.

## 2. 秋冬의 取穴法

春夏에 자침하는 부위를 陽氣의 發散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면 秋冬은 수렴되는 과정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秋冬의 刺鍼 부위는 주로 五輸穴으로써 설명하고 있는데 五輸穴은 春夏에서 언급한 盛經[陽脈]만이 아닌 陰脈까지 포함한 모든 經脈에 위치하고 있는 것, 기능상 臟腑와 直通한다는 것<sup>21)</sup>, 또한 「四時氣」에서 “邪氣가 腑邪에 위치할 때에는 合穴을 취한다”<sup>22)</sup>라고 하여 이미 五臟六腑까지 邪氣가 들어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秋冬의 刺鍼 부위는 春夏에 취하는 皮膚, 分腠, 孫絡등에 비해서 深部に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가을과 겨울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가을은 주로 俞穴, 經穴, 合穴을 사용하였고 겨울은 井穴, 榮穴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가을에 氣가 수렴되는 것과 겨울에 다시 陽氣가 始生하는 두 가지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水熱穴論」에서

가을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가을은 金氣가 다스리기 시작하니, 가을에는 氣가 수렴하여 肅殺되는데 金氣가 장차 火氣를 이기려고 한다. 陽氣는 合穴에 있고, 陰氣가 처음 이기려 하여 濕氣가 몸에 미치지만 陰氣가 아직 盛하지는 못하여 깊이 들어올 수는 없다. 그러므로 俞穴을 취하여 陰邪를 瀉하고<sup>23)</sup>, 合穴을 사용하여 陽邪를 虛하게 하며, 또한 陽氣가 비로소 衰하므로 合穴을 취한다(秋者, 金始治, 肺將收殺, 金將勝火, 陽氣在合, 陰氣初勝, 濕氣及體, 陰氣未盛, 未能深入, 故取俞以瀉陰邪, 取合以虛陽邪. 陽氣始衰, 故取於合).”<sup>24)</sup>라고 하였다. 즉, 陽氣가 수렴되기 시작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合穴에 머물러 있고, 이때에 밖에서 들어온 冷氣는 濕의 형태로 體表에 미치지만 아직 깊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陽邪가 나타나는 이유는 미처 안으로 수렴되지 못한 陽氣와 밖으로 선발되지 못한 熱氣가 차갑고 습한 기운에 막혀서 鬱滯되기 때문이다. 合穴을 취하여 이러한 陽邪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안으로는 精氣를 제대로 수렴하여 갈무리하므로 오히려 陽氣가 충족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張介賓은 “陽氣가 衰하기 시작하고 陰氣가 勝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寒濕의 氣가 몸에 이르지만 陰氣가 아직 깊지 않고 오히려 陽分에 있다. 그러므로 經穴과 腧穴을 취하여 陰邪를 瀉한다. 陽氣가 쇠하기 시작하니 그러므로 合穴을 취하여 陽邪를 虛하게 한다(陽氣初衰 陰氣初勝 故寒濕之氣及體, 陰氣未深, 猶在陽分. 故取經俞, 以瀉陰邪. 陽氣始衰, 故取合穴, 以虛陽邪也).”<sup>25)</sup>라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가을에는 陰氣가 여름에 表部에 위치했던 陽氣를 포위하여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陰氣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寒濕의 邪氣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직은 깊은 부위가 아닌 表部에 가까이 위치하는 經穴이나 腧穴을 사용하게 된다. 다시 수렴되는 과정에

21) 李容範, 洪元植은 ‘黃帝內經의 本輸理論에 대한 研究’(大韓原典醫學學會誌. 6. 1992. p.145.)에서 “四肢末端에서 肘膝까지는 인체의 모든 부위 중에서 그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다. 이러한 왕성한 활동 즉 경맥의 陽의 활동은 四肢의 제일 끝 부분의 가장 淺部에서 그 極에 이를 것이며 肘膝관절까지 그 활동이 이어질 것이다. 즉 사지말단에서 주슬부위까지는 경맥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져 그 결과로 무엇인가 열매 맺게 되며...”라 하였으며, 姜棟允, 趙學俊은 ‘經脈과 絡脈의 循行樣式과 榮衛氣의 運行特徵의 상관성에 대한 考察’(大韓原典醫學學會誌. 19(2) 2006. p.42.)에서 “또한 「根結」에서 經氣가 사지 말단의 陽分으로 出溜·注하여 陽分인 頭部와 胸部로 순행하다가 陽分인 頭頸部를 통해 다시 陰分인 五臟으로 들어온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즉, 五輸穴은 사지말단의 表部에 있기는 하지만 五行의 속성이 정해져 있어서 相生相克의 運用이 가능하므로, 臟腑의 虛實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穴位보다 효능 상 深部に 직접 연결된 것으로 본다.

22) 金達鎬, 李鍾馨. 黃帝內經 靈樞. 서울. 醫聖堂. p.522. “邪在腑, 取之合.”

23) 經穴에 대한 언급은 “帝曰, 秋取經俞, 何也.”라는 질문에 만 언급되고 있다. 陽邪가 深部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라 한다면 經穴을 刺鍼하는 것도 가능하다.

24) 金達鎬, 李鍾馨. 黃帝內經 素問(下). 서울. 醫聖堂. 2002. p.212.

25) 張介賓 著. 李南九懸吐注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782.

서 발생할 수 있는 陽邪를 禱하기 위하여 合穴을 사용하며, 동시에 정상적인 陽氣가 가장 깊은 곳까지 잘 수렴될 수 있도록 다시 合穴을 사용하여 돕는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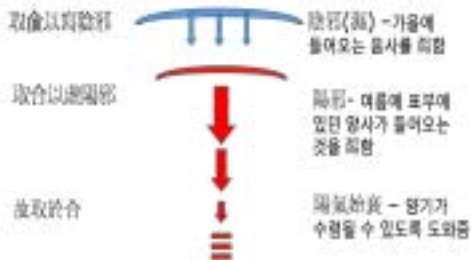


그림 3. 秋의 刺鍼 부위

본래 俞穴, 經穴, 合穴은 모였던 脈氣가 合으로 흘러들어가는 수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상응한다 할 수 있다<sup>26)</sup>. 여기서 合穴을 사용하여 熱邪에 가까운 陽邪를 虛하게 하고 동시에 衰한 陽氣를 북돋아 주는 원리는, 合穴이 우리 몸의 表裏를 소통하는 길목에 해당하므로<sup>27)</sup> 이를 刺鍼함으로써 經氣를 원활하게 소통시켜 鬱滯된 陽邪를 제거하고 精氣를 수렴하여 陽氣를 보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겨울은 「四時氣」나 「本輸」에서 「深而留之」라 하여 그 表裏로 따진다면 가을 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최종 목표가 단지 깊은 곳의 邪氣를 제거하는데 있다가 보다는 井穴과 榮穴을 刺鍼하여 새롭게 陽氣가 始生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8)</sup>. 「水熱穴論」에서는 「겨울은 水氣가 다스리기 시작하니,

腎이 바야흐로 기운을 단아서 陽氣는 衰少하고 陰氣는 단단하게 盛하여 巨陽이 잠복하여 가라앉고 陽脈이 사라지므로, 井穴을 취하여 陰氣가 逆하는 것을 억누르고 榮穴을 취하여 陽氣를 實하게 한다(冬者, 水始治, 腎方閉, 陽氣衰少, 陰氣堅盛, 巨陽伏沈, 陽脈乃去, 故取井以下陰逆, 取榮以實陽氣).<sup>29)</sup>라고 하였는데, 腎의 水氣가 지나치게 閉藏하여 陽氣가 가라앉아 陰逆이 발생한 것을 억제하고 陽氣를 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겨울에 陽氣가 지나치게 閉塞되어 厥證이 발생하는 것을 치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sup>30)</sup>. 또한, 다음 계절인 봄에 陽氣의 發散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井穴과 榮穴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충족되는 陽氣는 밖으로 발산의 힘만을 가진 陽氣가 아니라 精氣의 속성을 가진 陽氣로서 발산할 때에 오히려 지나치게 성해지는 것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같은 편에서 “그러므로 ‘겨울에 井穴과 榮穴을 취하면 봄에 疔瘡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를 이른 것이다(故曰, 冬取井榮, 春不疔衄, 此之謂也).<sup>31)</sup>”라 하였다.

張介賓은 “井穴은 겨울에 응하고 榮穴은 봄에 응한다. 겨울은 水에 속하고 水는 腎을 주관하며 水는 겨울에 왕성하며 그 氣는 閉藏한다. 少陰은 腎이며 巨陽은 膀胱이다. 二經은 表裏가 되니 陰氣가 盛하여 陽脈이 衰去하게 된다(井應冬, 榮應春也. 冬屬水, 水主腎, 水王於冬 其氣閉藏也. 少陰, 腎也. 巨陽, 膀胱也. 二經表裏, 陰氣方盛, 所以陽脈衰去).<sup>32)</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겨울에 閉藏된 陽氣가 새로이 始生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 것으로 巨陽[太陽]의 開하는 속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井穴은 子月에 깊은 곳에서 陽이 始生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井穴을 사용해 陰이 盛하여 逆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였는데 ‘下陰逆’이라는 것은 인체를 상하로

26) 靈樞·九鍼十二原에서 말한 ‘所注爲腧’, ‘所行爲經’, ‘所入爲合’ 등의 개념으로 점차 안으로 氣가 수렴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7) 白裕相은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52.)에서 “合穴은 곧바로 內府로 氣를 수렴하는 곳이므로 內府의 病을 다스린다.”라고 하여 五輸穴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合穴이 우리 몸의 표리를 잇는 통로임을 설명하였다.

28) 이는 靈樞·九鍼十二原에서 말한 ‘所出爲井’, ‘所溜爲榮’ 등의 개념으로 점차 밖으로 氣가 발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9) 金達鎬. 黃帝內經 素問(下). 醫聖堂. p.212.

30) 用藥法에서 腎氣가 지나치게 堅固하여 陽氣의 發散을 막을 경우에 辛味를 사용하여 氣를 行하여 津液을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31) 金達鎬. 黃帝內經 素問(下). 醫聖堂. p.212.

32) 張介賓 著. 李南九懸吐注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782.



바라볼 때 陰部인 아래에서 陰氣가 너무 盛하여 陽部인 上部로 치고 올라오는 것으로 厥의 象을 말한다. 張介賓은 注釋에서 “井穴을 取하여 陰逆을 내리는 것은 남은 것을 억제하는 것이고, 榮穴을 取하여 陽氣를 實하게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取井以下陰逆, 抑有餘也. 取榮以實陽, 扶不足也).”<sup>33)</sup>라고 하였으니, 陰이 너무 성한 나머지 陽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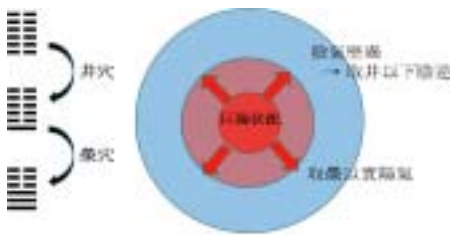


그림 4. 冬의 刺鍼 부위

井穴과 榮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井穴이 刺鍼하여 견고하게 둘러싼 陰氣를 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榮穴은 상대적으로 이미 始生한 양기를 충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sup>34)</sup>. ‘榮’이라는 글자는 본래 ‘작은 물이 막혀서 고인다’<sup>35)</sup>라는 뜻이고 ‘榮’을 설명한 ‘溜’라는 글자는 ‘흘러나온 물이 고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冬至에 始生한 陽의 기운이 그 용을 가능하게 할 때까지 모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치 榮穴이 復卦의 형상에서 泰卦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이미出汗 陽氣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4).

종합해 보면, 겨울에 陰氣가 지나치게 성해져서 陽氣를 억누르면 厥逆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井穴과 榮穴을 사용하여 이를 다스리게 된다. 이때 井穴과 榮

穴은 견고한 陰邪를 깨뜨리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陽氣를 북돋아서 충실하게 하므로 오히려 氣의 發散을 조절하여 過不及을 없애는 작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 IV. 結論

天人相應의 원칙아래 시간의 흐름에 적합한 생활과 치료를 중시한 『黃帝內經』에서는 계절에 따라 刺鍼의 부위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그 대강을 보면 봄과 여름에는 陽氣가 밖으로 펼쳐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가을과 겨울에는 陽氣가 안으로 수렴되고 다시 始生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스리고자 하였다. 계절별 五輸穴 取穴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봄에는 陽氣가 아직 미약하여 陽分의 중간에 머무르기 쉬우므로 陽氣를 소통시키기 위해 絡脈이나 分肉등을 刺鍼하였다.
2. 여름에는 陽氣가 盛하여 보다 表部를 薰蒸하거나 脈의 陰氣가 허해진 深部를 薰蒸하므로 表로는 孫絡과 腠理에, 裏로는 盛經에 刺鍼한다.
3. 가을에는 陽氣의 수렴 과정에서 발생하는 陰邪와 陽邪를 瀉하고 陽氣가 깊숙한 곳까지 정상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각각 腧穴, 經穴, 合穴에 刺鍼한다.
4. 겨울에는 陽氣가 수렴되었다가 다시 始生할 수 있도록 돕는데, 陰이 堅盛하여 陽氣가 始生하지 못하거나 厥逆이 발생하는 것을 다스리기 위해 井穴을 사용하고 始生한 陽氣가 충실히 모일 수 있도록 榮穴을 刺鍼한다.

종합적으로 『黃帝內經』에서는 陽氣가 深部에서 表部로 발산되고 다시 深部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氣의 위치와 盛衰에 따라 계절별 刺鍼 부위를 정했음을 알 수 있다.

계절별로 刺鍼 부위를 배속한 것이 辨證 없이 항상 같은 자리를 取穴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氣의 浮沈과 盛衰에 따라 刺鍼 부위를 결정하는 원리

33) 張介賓 著, 李南九懸吐注釋.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782.

34) 董建勇, 趙曉薇의 ‘五輸穴與四時鍼法’(甘肅中醫學院學報. 1996. 8期. p.43.)에서는 “故取井瀉陰氣, 井屬陰, 取榮穴補陽氣, 榮爲陽氣升發之穴, 以助轉樞.”라 하여 井穴이 陰氣를 瀉하고 榮穴이 陽氣를 升發한다고 하였다.

35) 許慎. 說文解字註. 大星文化社. 1990. p.553. “滯榮, 絕小水也.”

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臟腑辨證이나 經脈辨證을 통하여 결정된 것에 加減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치료의 원리와 실행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잊혀져 왔지만 外氣와 內氣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와 응용방안에 관하여 향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化社. 2006. pp.779-782.

7. 許慎, 說文解字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53.

## 參考文獻

### <논문>

1. 姜棟允, 趙學俊. 經脈과 絡脈의 循行樣式과 榮衛氣의 運行特徵의 상관성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2). p.42.
2. 董建勇, 趙曉薇. 五輸穴與四時鍼法. 甘肅中醫學院學報. 1996. 8期. p.43.
3.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52.
4. 李容範, 洪元植. 黃帝內經의 本輸理論에 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2. 6. p.145.
5. 洪元植, 嚴東明. 五輸穴을 이용한 四時刺法-『靈樞』와 『難經』을 중심으로. 大韓鍼灸學會誌. 2000. 17(4). p.27.

### <단행본>

1. 金達鎬, 李鍾馨. 黃帝內經 素問(下). 서울. 醫聖堂 2002. p.210, 212.
2. 金達鎬, 李鍾馨. 黃帝內經 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90, 522, 856, 858.
3. 東洋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東洋醫學大辭典(7).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p.104.
4. 楊上善 著. 王洪圖, 李云增補點校.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p.274-275.
5. 尹暢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944.
6. 張介賓 著. 李南九 懸吐注釋. 類經. 서울. 法仁文